# 부활예수님 만나는 유일한 원칙

## (마28:8-15)

8.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9.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1.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12.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4.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부활예수님 만나는 유일한 원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부활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벗어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이야기들이 여러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까지 곁들여서 생각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재미있게 전개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원칙을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한다면 기독교신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인지 아닌지 확증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당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그리고 만일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왜 ‘예’라고 대답하십니까?
어떤 이유에서 여러분이 부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확증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처럼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보이는 게 신앙입니다, 천국에 올라갔을 때는 신앙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필요도 없고.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을 때 신앙이라는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신앙이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모두 하늘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다 가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천국으로 가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갈 천국으로 마음이 미뤄놓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분주한 생활들 때문에 마음이 이 세상에 빼겨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마음이 없이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이 몸을 움직이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신 사도바울의 말씀이 그 뜻이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뜻도 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몸이 남아있으면서 이루어져야 될 삶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이 이 세상의 일이나 사람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께로 온통 다 가있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천국에 올라가는 방법, 그게 바로 부활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부활예수님을 만나야 내 마음이 천국으로 다 갈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으로 이 몸이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법과 몸은 있는데 우리 마음이 미국으로 날아가는 법이 달라요.
몸이 날아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고 티켓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마음이 날아가려면 내가 극진히 마음을 두고 사랑하는 사람이 미국으로 가야 내 마음이 미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미국에 가있으면 내 마음도 미국에 갑니다.
그러기 전에는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마음이 미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내가 간절히 원하는 무엇인가가 미국에만 있을 때는 마음이 미국에 갈 수도 있겠죠.
그것도 역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다른 곳으로 보내질 수가 있습니다.

부활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부활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미국에 갔을 때 마음이 미국으로 따라가듯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나, 못 만났나 하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땅 위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미국에 먼저 가있고 1년 뒤에는 내가 미국으로 가서 함께 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한국 땅에서 뭔가 이루고 싶다는 소원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1년 동안은 시장에 가서 물건들을 보아도 미국에 가서 쓸 물건들만 염두에 두고 사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승천해서 천국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천국에 다 가있게 됩니다.

천국에 다 가있다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이 다 천국으로 가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소원이 없어요.
옆집에서 대단히 사업이 잘돼서 멋진 외제차로 바꿨다고 해도 전혀 샘이 나질 않는 거예요.
동창생이 대기업의 사장님이 되었다고 해도 이런 것이 하나도 샘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마음이 천국에 가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되게 많지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것이고 아직도 기독교신앙의 올바른 경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부활예수님을 두고 만나는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본문을 그냥 스쳐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모양을 가만히 봅시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는 언급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즉각적으로 정면으로 만납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나라에 간 닐 암스트롱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리고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해서 처음으로 발을 디뎠다, 이게 다 별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만난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가 대단한 여자입니다.
말하자면 인류역사상 기독교인으로 No.1입니다, 제1호 기독교인이에요.

제자들, 만나긴 만납니다, 그런데 시간의 격차가 있어요. 만남이 유보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보고를 듣고 깜짝 놀란 베드로가 다른 제자와 함께 무덤으로 뛰어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 만나 주십니다.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여자들이 한 말이 맞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더라,

부활하셨나보다’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옥신각신 합니다.
왜 이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왜 즉각적으로 베드로를 만나주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궁금하지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줄 모릅니다.
그들이 말씀을 해설해주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 예수님이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사라져버리십니다.
예수님인줄 모르고 있을 때는 같이 계시다가, 깨달았을 때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여기에 만남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벗어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또, 경비병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인가 하면, 제자들이 문을 모두 닫아걸고 있을 때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지진이 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무덤 문이 큰 돌로 막혀 있다가 그 돌이 굴러진 것도 보았습니다, 혹시 휘황찬란하게 광채가 나는 두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대제사장에게 와서 보고를 하고 돈을 받고 거짓말로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말을 유포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만나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안 만나주시고, 경비병들에게도 안 만나주시고,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도 당신인 것을 드러내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데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당신의 모습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시면서 만남을 허락하셨을까요?
마태가 힌트를 줍니다, 반복해서 27장 55,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운명하실 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자, 막달라 마리아가 한번 언급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를 지냅니다, 무덤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61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함께 했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지내게 될 때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실 때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땅에 장사지낼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께로 마음이 다 가 있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안식 후 새벽에 -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 마음이 온통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에게 다 가있는 상태에서 안식일을 지나도록 기다렸다가 향품을 들고 예수님 무덤으로 나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면적으로 즉각적으로 딱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안 만나주십니다.
보세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하고 땅 밑의 무덤으로 묻힐 때 함께 하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께 마음을 다 두고 따라서 땅 밑으로 들어간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전면적으로 만나주시는 반면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베드로가 무덤에 왔는데도 안 만나주시고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시간적 공간을 두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을 할 때, 제자들의 생각이 갑자기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뭔가 확실하게 의미가 잡히지는 않지만 필연적인 사건이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에게 마음을 조금씩 주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적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받아들여지고 무덤에 묻히신 이유가 서서이라도 마음에 수용될 때라야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질 수 있는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왜 예수님을 대면하면서도 못 만난 걸까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무룩해서 우울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인줄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하면서 우울해하며 가고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은 모른단 말이요? 선지자처럼 대단한 능력을 갖고 아름다운 많은 일을 행한 분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줄로 알았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사건이 실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의 생각은 예수님이 로마식민지로부터 선민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줄로 알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겁니다.
마주 대하고 대화하고 성경을 가르쳐주시는 동안에도 못 만납니다.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피해버리십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상태로 만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같이 마음이 무덤에 내려가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하관예배 드린 자로 예수님을 따라 들어

가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칙, 이 길이 아닌 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경비병들, 만날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시체를 내어주라고 말했을 때도 경비병들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라고 연합하지 않고, 내가 땅 밑에 묻힌 자라고 주님과 함께 마음이 따라 무덤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경비를 하고 있었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도 이들은 못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지만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회복할 줄 알았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 사업의 문제를 회복할 줄 알았다' 그러면 못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냥 예수님 자신에게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내 마음도 십자가에 올라가 있고, 그분이 무덤에 묻히시면 내 마음도 무덤 아래로 들어가 있고, 무덤까지 그분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도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막달라 마리아가 걸어간 길을 간 거예요, 이 원칙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덤에 묻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같이 마음이 따라 올라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이라도 이 몸을 떠나 온전히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 땅에서는 소원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도바울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살았던 거지, 사도바울의 마음과 뜻이 산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과 그의 뜻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해버리실 때 미국 간 사람 따라 마음이 미국으로 가듯이 천국에 가버린 겁니다.
그게 날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함께 했고, 무덤에 장사지낼 때 함께 했고, 무덤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만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으로 내려간 예수님의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감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내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서 마음이 천국으로 다 가버린 것을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야 하루를 사는 것도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 삶을 운행해나가실 것이고, 내 마음은 주님 따라 온통 천국에 가있는 상태에서 삶이 진행된다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원칙, 마태가 정확하게 세 번을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어디 있었습니까?
돌아가실 때, 장사지낼 때,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렇게 함께 해야…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의 이 과정을 청룡열차 탄 것처럼 거쳐 지나가는 겁니다.
일단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마음이 합치되면 그 다음에 나를 하관예배의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죽었다', '이 세상에서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해서 승천했으므로 이제 내 마음은 오직 하늘나라만이 관심이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이고, 나의 소원이다' 하늘나라에 다 가있는 상태.
이 땅은 한번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유일한 원칙, 날마다 죽는다는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이 원칙의 길을 반복해서 걸으시면서 내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있는 것을 확인하는 참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나라를 회복할 줄로 알았노라'
이 땅에서 주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바라는 동안에 우리는 결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걸었던 그 원칙의 길을 우리도 날마다 순간마다 걷게 하셔서 부활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결과 우리 마음이 온통 천국에 다 가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